

3-17-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42:1-11

말씀제목: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휴거될 성도들의 기도,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천년왕국

다윗 왕은 자신이 부활하는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휴거 되는 것만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가 드린 기도 속에 마지막 때에 고난 가운데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같이 오 하나님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 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를 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시 42:1-11)

그는 배교와 휴거 후에 세상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될 적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불꽃으로 떨어져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행악자(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시 37:1-11)

또한 대 환란 끝에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의해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본 다윗 왕은 그가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시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할으리이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구해주며 도울 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 주리이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꼭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도 레바논 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가 복 받은 자라 하리이다.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72:6-19)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불꽃으로 떨어져 심판 받는 광경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증거했으며 대 환란 끝에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적그리스도)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계 19:19-21)

욥기와 마태복음에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욥 39:28-30, 마 24:27-28)

사도 요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 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하더라.”(계 20:1-4)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미리 휴거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들은 말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십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쥐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더라.”(계 5:9-10)

그들이 휴거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